

## 녹색성장시대의 마을만들기 발전방향\*

The Ways of Maecul-mandculgi(Making Village)  
in the era of Green Growth

조영태\*\*·최상희\*\*\*·김륜희\*\*\*\*·김성제\*\*\*\*\*

최근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에 따라 국토, 도시정책의 여러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녹색성장시대의 마을만들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론고찰과 사례분석을 통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마을만들기의 흐름과 일본의 마찌즈쿠리를 고찰하며, 국내외 정책흐름인 녹색성장에 맞춘 녹색마을만들기(그린타운) 개념을 정의하였다. 사례분석에서는 녹색마을만들기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국내 27개 사례를 대상으로 매개요소(계획요소), 지향가치, 지역적 특성, 수혜계층과 추진체계와의 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이론고찰과 사례분석을 통해 녹색마을만들기(그린타운)의 성공을 위한 키워드로는 주민참여, 공동체생활, 마을 리더, 특화방안, 대안적 교육 및 돌봄, 문화와 예술,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등을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녹색마을만들기 발전전략으로 ① 주민의 인식확대와 가치공유, ② 지역의 특성화와 지속성 유지, ③ 저탄소 마을환경 조성과 녹색생활 실천, ④ 사업의 네트워킹과 체계화, ⑤ 대안적 교육환경 활성화와 공동의 돌봄(노인, 육아) 등을 제안할 수 있다.

\* 본 논문은 2009년 LH 토지구택연구원 연구과제인 “녹색성장시대의 그린타운 도입방안 연구”의 내용을 일부 정리한 것이며, 한국도시행정학회 2010년 추계학술대회에 발표된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 LH 토지구택연구원 수석연구원(주저자: ump2000@empal.com)

\*\*\* LH 토지구택연구원 수석연구원(교신저자: firkin@empal.com)

\*\*\*\* LH 토지구택연구원 수석연구원

\*\*\*\*\* LH 토지구택연구원 책임연구원

주요어: 녹색성장, 그린타운, 마을만들기, 커뮤니티, 지속성

## 1. 서론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르면 ‘녹색성장’이란 에너지·환경관련 기술과 산업 등에서 미래 유망품목과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산업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얻는 것을 의미한다. 2008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발표 이후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녹색 성장에 기반을 둔 신성장동력 발굴,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녹색성장’이 갖는 의미는 우리 사회 저변에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공동체 또는 지역 환경의 개발과의 관련성을 포함하는 토지이용계획으로 현장 특유의 녹색 건물의 개념과 밀접한 관련<sup>1)</sup>이 있으며,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 환경계획, 건축, 공동체, 건물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녹색성장시대의 ‘마을만들기’사업은 기존 마을만들기 모델이나 방식과는 차별화되어야 하며, 시대적 패러다임에 적합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녹색성장시대의 마을만들기를 그린타운이라고 정의하고, 도시 및 농촌지역의 새로운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로서 녹색 성장에 부합하는 마을만들기, 즉 그린타운 조성을 위한 계획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내용은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 및 이론 검토, 마을만들기 사례분석, 그린타운 조성을 위한 시사점 도출 등으로 요약되며 각 단계별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 및 이론은 기존 선행연구 등 문헌고찰을

1) 위키백과(<http://ko.wikipedia.org>)

통해 진행하였다.

그린타운을 녹색성장시대에 부응하는 마을만들기라 정의하고 이를 좀 더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그린타운에 대한 개념을 정리한다. 마을만들기 관련 정책은 그린타운 조성 및 밀접하다고 판단되는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검토한다.

둘째, 사례분석을 위하여 27개 마을을 현장조사하였다. 선정된 마을은 언론 등을 통해 성공사례로 소개된 곳이며, 사례분석 대상별로 사업내용, 추진주체, 관련 정책 및 제도, 대·내외 평가,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셋째, 사례조사 결과를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 특성들을 정리하였다. 유형구분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공간적 범위와 대상(신규 공간 창출, 기존 공간 확대·발전, 쇠퇴공간 재활성화), 매개요소(계획요소: 문화, 예술, 생태, 산업, 교육, 공동체 등),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향가치 및 목표(공간의 질 향상, 공공성 개선, 지속가능성 정립, 자립성 도모), 추진체계 및 이용자 측면의 특성(공간의 소유자, 사용자, 관리자 등의 역할이 사업에 미친 영향) 등을 기준으로 나누었으며, 이에 따라 각각의 사례들을 분류하여 특성을 분석하였다. 유형분류 결과 유사한 사업 간의 비교분석을 통해 각각의 사업들이 갖고 있는 차별성과 보완과제를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례분석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그린타운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정책 및 이론 검토

### 1) 마을만들기 흐름

우리나라에서 마을만들기 개념은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60~1970년대 새마을운동도 그 배경이나 목표를 보면 마을만들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마을만들기는 1995년 지방자치체가 실시된 이

후 더욱 확대되었다. 이 시기의 마을만들기는 각 지자체의 대표적인 지역개발 수법으로 활용되었다. 각 지자체별 마을만들기 방식은 도시와 농촌으로 차이가 나타난다. 도시지역에서 마을만들기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환경 개선이 중심이라면 농촌지역에서는 지역경제 발전과 기반시설 확충이 강조되었다. 마을만들기는 참여정부 들어 전성시대를 맞이하여, 전국 각지 1천여 곳에서 각종 마을만들기(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살고 싶은 지역만들기 포함)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마을만들기가 새마을운동 수준의 단순한 마을가꾸기에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자생적인 지역발전 전략으로 발전하였음에도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인해 질적인 변화보다 양적인 증가만을 야기하였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sup>2)</sup> 물론 이 가운데 제주도 서귀포 예래동, 강원도 화천군 토고미마을, 서울시 성미산마을, 인천시 부평구 문화의 거리, 대구시 중구 삼덕동, 부산시 반송2동, 충남 홍성군 문당리, 경기도 이천 부래미마을 등은 자생적인 마을만들기 사례로서 높게 평가되고 있다(김전기·이소영, 2007). 중앙부처 수준에서의 대표적인 마을만들기 정책으로는 국토해양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행정안전부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체험마을조성·전원마을조성·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또한 강원도 ‘새농촌건설운동’, 전북 진안군 ‘어뜨마을 가꾸기사업’, 광주시 북구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등 자생적인 마을만들기를 지원, 확산하기 위한 지방정부 수준의 사업도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김진범 외, 2008). 이러한 마을만들기는 녹색성장시대에 맞는 마을만들기의 모델을 확립하기도 전에 그 이

2) 변창흠(2005)에 따르면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비판이 제기됨. 균형발전정책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음(김형기, 2004; 김용웅·강현수·차미숙, 2003; 강현수·정준호, 2004; 이재은, 2004). 좀 더 본질적으로는 균형발전 정책 자체가 지나치게 국내적 안목에서 추진됨에 따라 대외적인 경쟁력 확보를 무시하고,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간 갈등을 과도하게 유발시키고 있음(운영태, 2005; 정희운, 2004; 최막중, 2004).

름과 내용을 바꾸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림부(농촌뉴타운·금수강촌만들기·농촌마을종합개발·전원마을·농업농촌테마공원조성·녹색농촌체험마을), 국토부(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문화부(문화마을, 슬로시티), 환경부(에코시티, 그린시티), 행안부(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소도읍육성) 사업들이 그러하다. 또한, 저탄소 녹색마을(환경부, 농림부, 행안부, 산림청)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때, 저탄소 녹색마을은 마을 단위의 공간에서 주민들이 녹색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유도하는 기초생활권 중심의 공간적·실천적 단위로서,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활용한 에너지 자립 강화형 ‘저탄소 녹색마을’ 사업뿐만 아니라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녹색마을 또는 녹색커뮤니티도 모두 포함한다.<sup>3)</sup>

## 2) 일본의 마을만들기, 마찌즈쿠리

우리나라에서 마을만들기란 1990년대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서 일상 생활환경의 문제들을 풀거나 개선하려는 활동”을 뜻하며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연대하기 위한 시민운동이 확산되면서 이 활동을 부르던 용어로 사용되었다(정석, 1999). 이 용어의 어원은 일본의 마찌즈쿠리(まちづくり)이다.<sup>4)</sup> 1962년 나고야의 도시개발운동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어졌

3) 정부는 에너지 자립율을 40~50%제고(2010~2020년)하고자, 2010년 시범마을 12개소(읍: 6, 군: 6)를 지정하고 2013년까지 9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지자체 거점별 녹색마을센터를 2013년까지 100개소로 확충할 계획이다.

4)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마을만들기’는 まち(마찌)를 ‘마을’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하게 됨으로써, 은연중에 ‘마을’이라는 개념에 해당하는 특정 공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오민근, 2003). 이에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들의 공간적 범위는 대개 행정단위와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마찌즈쿠리의 대상범위는 넓게는 국토에서, 작게는 마을 안의 썸지공원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와 내용이 보다 넓고 다양하다. 일본의 ‘まちづくり(마찌즈쿠리)’라는 단어는 ‘마을(町)’ 혹은 ‘가로(街)’를 의미하는 ‘まち(마찌)’와, 무언가를 만들어낸다(造·作·創)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つくり(쓰쿠리)’로 구성되어 있다. ‘まち’는 마을 및 가로에 해당하는 유형의 것뿐만 아니라 마을 내의 무형의 것들(역사·문화·자연·경관·환경 등), 그

으며, 그 후 일본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전국에서 전개된 구획정리사업에서 주민을 주체로 주민의 가치관에 기초한 마을만들기가 주장되어 왔다. 1960년대 이후 일본에서는 지방의 정체성 및 가치 재발견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서 마찌즈쿠리가 확대되었다. 이는 주민관점에서 기획되는 물리적·사회적 지역환경 정비운동으로서 주민과 전문가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하였다(마상열, 2009). 기성 시가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정비사업에도 지역주민·전문가·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1990년대 이후 시민과 시민단체, 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하여 녹지 보전, 지역 환경정비, 중심 시가지 재생의 지역과 관련된 주민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은 도시환경 전반에 걸친 활동을 포함하며 행정과 전문가의 참여 및 협조와 더불어 시민의 참여에 의한 의사결정을 큰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마찌즈쿠리는 대개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혹은 ‘지역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오민근, 2003). 이때, 활성화의 수단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관광’을 위주로 한 경제적 수단들이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효과를 관광적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기에 ‘관광’이라는 수법이 가장 중요하거나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기 쉽기 때문이다.

마찌즈쿠리가 적용되는 ‘공간적 규모’는 행정구역단위가 될 수도 있지만 복지, 전통문화, 자연 및 환경, 가로, 주거지, 문화시설, 문화재, 공장 이전지, 중심시가지, 전통 가옥군, 재래시장 등과 같이 그 공간적 범위가 제각기 다른 모든 분야가 해당된다. 마찌즈쿠리는 주민, 행정, 전문가라는 세 가지의 주체로 구성, 추진되는 것이 기본 구도이다.

---

리고 마을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까지도 포함한다. ‘づくり’는 앞에 기술한 한자어 뜻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순히 가로시설물을 만들거나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하는 행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まち’를 대상으로 이제는 무언가를 창조해낸다는 보다 넓은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일본 마찌즈쿠리의 특징은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sup>5)</sup>

첫째, 마찌즈쿠리는 경제성, 효율성, 편리성에 기초한 개발방식보다는 인간 환경에 적합한 지역개발을 강조한다. 둘째, 중앙 또는 지방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지역계획, 지역개발, 도시건설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집약하며 지역행정에 반영시키는 주민자치 및 참여가 중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주민이 서로 협동하여 도시개발과 관련된 사업이 서로 중복되거나 연계성 없이 진행되지 않도록 통일된 과제와 목표를 추구하는 종합적 주체성이 존재한다. 넷째,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특성을 재발견하여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지역의 개성을 확립할 수 있다. 다섯째, 단발적이고 단기적이지 않은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창조성을 가진다. 여섯째, 마찌즈쿠리는 관념과 미래상의 청사진만이 아닌 현실을 바탕으로 행동을 수반하는 실천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 일본의 마찌즈쿠리의 특징은 우리나라의 마을만들기 방향설정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 3) 그린타운(녹색마을만들기) 개념

녹색성장시대의 마을만들기, 즉 녹색마을만들기를 ‘그린타운(green town)’이라는 용어로 정의하고자 한다. 그린(green)의 사전적 의미로는 녹색의, 야채(푸성귀, 채소)의, 생(生)의, 미가공의, 원기 왕성한, 젊은, 활기 있는, 생태계를 중시하는, 녹색으로 하다(칠하다, 물들이다), 도시 등을 녹화하다, ~에게 활기를 되찾게 해주다, ~의 원기를 회복시키다, 다시 젊어지게 활기를 되찾다 등이 있다. 타운의 사전적 의미는 ① 도시(city) 개념보다는 작은 읍 또는 동 단위, ② 변두리의 반대로 도심지구, 변화가 등, ③ 마을(village)과 같은 개념이지만 시장이 있는 경우를 뜻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타운 개념에 계획적 요소로서 공동체(community) 개념과

5) 마상열, 『경남 인구감소도시의 관리방안 연구』(경남발전연구원, 2009), 27쪽.

근린(neighborhood)의 개념을 포함하여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였다.<sup>6)</sup>

본 연구에서 그린타운은 사전적 의미로서 그린과 타운의 특성을 강화하여 녹색성장시대의 성공적인 마을만들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개념적으로 이러한 방법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타운을 그린으로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린을 타운으로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먼저, 타운을 그린으로 만든다 함은 도시(마을)를 녹색으로, 도심(읍내)을 활기차게, 근린 또는 커뮤니티가 생태계를 중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며 다음으로 그린을 타운으로 만든다 함은 녹색마을 등 녹색성장시대 마을만들기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어지는 신도시에서 타운의 특성을 대변하는 공공성, 일상성, 공동체의식을 회복하도록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도시에서 진행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신개발지(new town)와 구별되는 기존 시가지(brown field)의 재생, 활성화, 복원과 관련되어 있는데 반해 농촌에서 진행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경제적 부흥, 인구 감소를 억제하는 일 등이 강조될 수 있다. 이에 도시에서 그린타운 조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기존 도시에서 그린타운 개념은 기존 시가지(brown field)를 외형적으로만 green field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존시가지가 가지고 있던 장점을 유지할 것인가와 관련되어 있다.

둘째, 신도시에서 그린타운 개념은 공공성 회복 및 공동체를 복원하는 활기찬(green) 커뮤니티(town) 조성과 관련되어 있다. 이와 달리 농촌에서 그린타운 조성은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로 효과적인 green field를 강화하고 녹색일자리, 녹색산업 창출로 지역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무엇보다 인구의 지속적인 정주기반 확보를 통한

6) 공동체(communitiy)와 근린(neighborhood)의 차이점은 공동체는 지역이라는 뜻을 포함하지 않는 사회적인 용어인데 반해 근린은 지역성(locality)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김진범 외, 2008). 또한 근린은 공동체가 활동하는 장소로서 정의할 수도 있다.

활기찬 커뮤니티 조성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 3. 사례분석

#### 1) 사례분석 개요

본 연구 사례분석은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부터 2009년 10월까지 완료된 마을만들기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사례들은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 다양한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당선되거나 수상내역이 있는 경우, 그리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 민간(주민) 참여로 이루어진 사례들 가운데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례들이다.

27개 사례조사 결과 기존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단독주택지내 물리적 인프라를 조성, 구축하는데 치중하였다면 본 연구에서 사례로 선정한 대상들은 생태, 공동체, 미술, 문화, 관광, 에너지 등보다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또한 기존 공동체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 사업뿐만 아니라 전원단지 조성, 특정계층(노인)을 위한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신규개발 사례 등도 대상으로 하였다. 더불어 중앙정부, 지자체 등 정부주도의 사업뿐만 아니라 미술협회, 생태공동체 등 자발적인 주민운동, 시민운동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업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각각의 사업이 추구하고자 하였던 마을만들기 사업의 목표, 내용, 추진체계의 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구성하는 기본요소를 매개요소(계획요소), 지향가치, 사업의 대상이 되는 지역적 특성, 최종적인 수혜계층과 추진체계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해당 사례를 심층 분석하였다.

< 표 1 > 사례분석 대상

구분	사례 마을
서울특별시	성미산, 부암동, 문래동철강문화단지
부산광역시	안동네, 감천2동(태극도마을), 문화골목, 보수동서점골목
광주광역시	북구
강원도	해살이마을
충청남도	산너울마을, 서천어메니티복지마을
전라북도	진주한옥마을, 전주남부시장, 부안등롱마을, 변산공동체, 군산탑동
전라남도	신안증도, 장흥슬로시티(우산마을, 신덕마을), 담양삼지촌
경상남도	산청안솔기마을, 산청갈전마을(민들레공동체), 남해가천다랭이마을, 남해독일인마을
제주특별자치도	두메이골목, 일도이동신천지아파트, 용왕난드르마을, 동광문화마을
계	27개

< 표 2 > 유형분류 기준의 내용

매개요소	공간적 범위와 대상		사업지향가치	수혜계층 및 추진체계
	대상지역 공동체 특성	계획용도 및 계획대상 공간특성		
문화, 예술 생태 산업 교육 공동체	도시vs농촌 기존공동체 신규공동체	샵터, 일터, 놀이터 등 공적 공간 vs 사적 공간 사적 공간 공용화 등	물리적 인프라 구축 공공성의 개선 지속가능성 확립 자립성 도모 소득 증대	공간의 소유자 사용자 관리자간의 역할 추진체계특성

## 2) 사례분석

### (1) 매개요소

물리적 요소를 매개로 한 사업뿐만 아니라, 예술, 문화, 생태, 산업, 교육 등 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매개요소를 시발점으로 하여 사업이 추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매개요소별로 각각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갖고

<표 3> 매개요소 특성 분석

구분	지자체	조사대상	지역전통 자원			문화·예술		생태		산업			공동체		교육· 육아	관광 체험
			유형	무형	자연	벽화	조형물	전시 축제	하드 웨어	소프트 웨어	1차	2차	3차	자발적 특정계층		
대도시	서울	성미산					●	●	●					●	●	
		부암동					●							●		
		문래동					●	●			●			●		
		안동네					●									
	부산	태극도					●									
		문화골목						●					●	●		
		보수동서점골목		●			●						●			
광주	북구					●	●	●								
중소도시	전주	한옥마을	●	●											●	●
		남부시장												●	●	
	제주	두메이골목					●									
		일도이동												●		
	서귀포	용왕난드르마을					●									●
		동광문화마을							●							
	강릉	해살이마을					●		●	●		●	●			●
	군산	탑동	●	●				●	●		●	●	●			●
농촌지역	서천	산너울마을						●	●						●	
		어메니티복지마을													●	
	산청	안솔기마을							●	●					●	●
		갈전마을							●	●	●			●		●
	남해	가천다랭이마을					●	●			●			●		●
		독일인마을													●	
	부안	등룡마을							●					●		
		변산공동체							●	●				●		●
	신안	증도	●	●	●						●	●	●			●
	장흥	슬로시티	●	●	●					●	●		●	●		●
	담양	삼지촌	●	●						●	●	●	●			●

있는 특성을 유형화하면 자발적 공동체 자체가 마을만들기 사업, 마을의 정체성과 장소성을 고양시키기 위해 문화적 코드를 활용한 사례, 지역의 유형·무형·생산기반 등 고유자원을 활용, 에너지 자립, 생태적 환경조성을 매개로 추진 사례, 기존의 공동체가 아닌 지역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공동체, 특경제층을 위한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례 등 7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매개요소가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발점이자 계획요소를 발굴하는데 주요 주체가 되어 물리적 인프라와 프로그램 운영의 주요 테마로 활용되고 있지만, 1차적인 운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산·교육·체험 등 관련된 사업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공간적 범위와 대상

마을만들기 사업이 추진되는 대상지역에 따라 1차적으로는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도시에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문화, 예술, 공공 공간조성, 공동체성을 중시하는 마을단위의 사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촌의 경우는 소득증대, 관광체험, 체류형단지 조성, 전통자원을 활용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도시와 농촌 간에는 마을만들기의 목표, 콘텐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커뮤니티의 일체감, 유대감을 확대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었다면 최근의 사례는 신규 커뮤니티, 집단의 이주를 통해 신규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하는 등 다양해지고 있으며, 공통적으로 커뮤니티 강화와 마을이 갖고 있는 물리적 특성, 산업의 브랜드화를 통해 장소성과 정체성을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물리적 인프라는 삶터, 일터, 놀터, 쉼터, 배움터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환경개선과 시설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삶터 조성은 초기에는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물리적 환경개선에서 출발하지만 생태, 에너지, 한옥 등 공통적인 계획요소를 발굴하여 적

< 표 4 > 공간적 범위와 대상에 따른 특성 분석

구분	지자체	조사대상	대상 지역		공동체 특성			계획용도				계획대상 공간특성			
			도시	농촌	기존공동체 확대발전	신규공동체 조성	정체성 재생	삶터	일터	놀터 쉼터	배움터	공적		사적	
												공공공간	공용공간	개별	공용
대도시	서울	성미산	●		●					●	●	●	●		
		부암동	●							●	●			●	
		문래동	●				●			●				●	
	부산	안동네	●		●					●		●			
		태극도	●		●					●	●	●			
		문화골목	●		●					●	●	●			
	보수동서점골목	●				●			●		●				
광주	북구	●		●				●		●	●	●		●	
중소도시	전주	한옥마을	●				●	●			●			●	●
		남부시장	●				●		●		●	●			
	제주	두메이골목	●		●				●		●				
		일도이동	●		●				●		●				
	서귀포	용왕난드르마을		●	●				●		●			●	
		동광문화마을	●												●
	강릉	해살이마을		●	●				●	●	●	●	●		
	군산	탐동		●	●		●		●	●	●	●			
농촌지역	서천	산너울마을		●			●							●	●
		실버타운		●			●		●				●		
	산청	안솔기마을		●			●					●		●	
		갈전마을		●	●		●	●							●
	남해	가천다랭이마을		●	●			●	●	●		●			●
		독일인마을		●			●							●	
	부안	등룡마을		●	●								●		
		변산공동체		●		●		●	●	●	●	●	●		
	신안	증도		●	●				●	●	●		●		
	장흥	슬로시티		●	●				●	●	●	●		●	
담양	삼지촌		●	●				●	●	●			●		

융합으로써 삶의 터의 정체성과 장소성을 배가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이 발전된다. 일터는 도시와 농촌지역에 따라 조성방안에 차별성이 보이는데 도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터 조성은 기존 지역의 재활성화, 활력증진, 새로운 문화적 코드를 도입한 재생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농촌지역은 자급자족, 기존의 생산기반을 현대화-고급화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마을주민을 위한 놀터는 전시공간 조성, 공원 조성 등 공용공간 확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외부인-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체류, 관광 등의 쉼터조성이 주요 사업내용으로 발굴되고 있다. 배움터는 방과후 교실, 대안학교 설립, 품앗이 공동체 운영 등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운동과 전통자원, 기술 등을 소비자, 외부사람에게 전수, 체험, 교육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이 시행되는 공간의 특성도 공적 공간뿐만 아니라 사적공간의 공유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전환되고 있다.

### (3) 지향가치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향하는 가치도 공간의 질적 개선에서 벗어나, 마을정체성·장소성 회복, 소득증진 및 자립성 강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 제고, 주민의 사회참여 증진, 주민·사회 네트워크와 공동체 회복·조성 등 다양해지고 있다.

도심에서는 물리적 환경 개선, 정체성 회복, 공동체 중심의 네트워크 강화에 중점을 둔다면, 농촌지역에서는 소득증진, 마을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의 가치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주민 간 네트워크와 공동체성 회복·조성은 기존 공동체와 새로운 커뮤니티로 구분될 수 있는데 주로 도심지역에서는 단절된 기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목표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참여를 독려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정계층을 위한 새로운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사업들에서는 집단화된 주거단지조성,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신규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 표 5 > 지향가치별 특성 분석

구분	지자체	조사대상	공간의 질적 개선	마을 정체성· 장소성 회복	소득증진 지립성 강화	지속 가능성	사회 참여	네트워크 공동체 회복·조성
대도시	서울	성미산				●		●
		부암동		●		●		
		문래동		●	●			
	부산	안동네	●				●	
		태극도		●			●	
		문화골목		●	●			
	보수동서점골목		●	●				
광주	북구	●			●		●	
중소도시	전주	한옥마을	●	●		●		
		남부시장	●		●			
	제주	두메이골목	●	●			●	
		일도이동						●
	서귀포	용왕난드르마을			●			
		동광문화마을				●		
	강릉	해살이마을			●			
군산	탐동			●				
농촌지역	서천	산너울마을				●		●
		실버타운						●
	산청	안솔기마을				●		●
		갈전마을			●	●		●
	남해	가천다랭이마을			●			
		독일인마을						●
	부안	등룡마을				●		
		변산공동체				●		●
	신안	중도		●	●	●		
장흥	슬로시티		●	●	●			
담양	삼지촌		●	●	●			

(4) 추진체계와 수혜계층

농촌지역, 새로운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사업의 경우는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주민의 사업 발굴, 운영·관리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별로 추진체계와 운영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시형 생태공동체, 도시형 마을만들기의 경우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 표 6 > 추진체계와 수혜계층 특성 분석

구분	지자체	조사대상	추진주체			공공 재정 지원	관리 및 운영 주체			수혜계층		
			주민	공공	NGO		주민	공공	NGO	주민	지역	외부
대도 시	서울	성미산	●				●			●		
		부암동	●				●			●	●	
		문래동철강문화	●				●			●		
	부산	안동네		●	●	●		●		●		
		태극도			●	●			●	●	●	
		문화골목	●				●				●	●
		보수동서점골목		●		●	●			●		
	광주	북구		●		●	●	●		●		
	중소 도시	전주	한옥마을		●		●	●			●	
남부시장			●				●			●		●
제주		두맹이골목	●				●			●		
		일도이동신천지	●				●			●	●	
서귀 포		용왕난드르마을		●		●	●			●		●
		동광문화마을	●	●		●	●			●		
강릉		해살이마을	●	●		●	●	●		●		●
군산		탑동	●	●		●	●	●		●		●
농촌 지역	서천	산너울마을			●	●	●			●		
		실버타운			●				●	●		
	산청	안솔기마을	●				●			●		
		갈전마을	●				●			●		
	남해	가천다랭이마을	●	●		●	●			●		●
		독일인마을		●		●	●			●		
	부안	등룡마을	●				●			●		
		변산공동체	●				●			●		
	신안	중도		●		●		●		●		●
	장흥	슬로시티	●	●		●	●		●		●	
담양	삼지촌		●		●	●		●		●		

NGO 등을 통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업을 발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추진 및 관리주체가 다양해지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전체 조사사례 중 주민 주도의 주민운영 사례와 공공주도의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업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으며, 태극도마을, 안동네 등 일부지역에 한하여서 미술협회, 시민단체가 주도 아래 공공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수혜계층은 농촌지역 일부와 공공공간의 설치미술을 테마로 하는 사업들의 경우는 관광객, 외부인, 인근지역을 포괄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은 소규모 집단, 마을단위의 주민을 위한 사업이 주요 목표로 설정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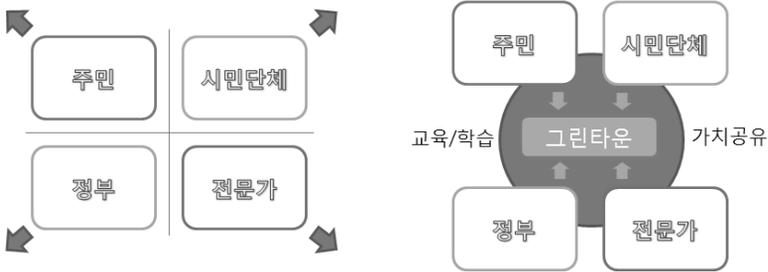
#### 4.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는 이상의 이론고찰 및 사례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이 녹색마을만들기 발전방향 및 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녹색성장시대 녹색마을만들기의 핵심적인 발전요소는 주민의 인식확대와 가치공유이다. 마을만들기, 그린타운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저변을 확대하고 공통의 가치를 찾아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최근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정책에서 추진했던 ‘도시대학’, 경기도가 주관하는 ‘뉴타운 도시대학’ 등은 지역주민이 교육과정을 통해 해당 사업 및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주민학습 프로그램이다. 본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은 소속 지역의 발전적,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고 이론교육과 체험학습을 병행하여 지역리더로 성장하고 있다. 그린타운 조성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마을계획의 전문가, 지역리더를 육성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녹색성장시대의 마을만들기는 지역 특성화와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획일적이고 물리적인 시설개선에만 치중하는 마을만들기는 지

<그림 1> 교육과 학습을 통한 주민의 인식확대와 가치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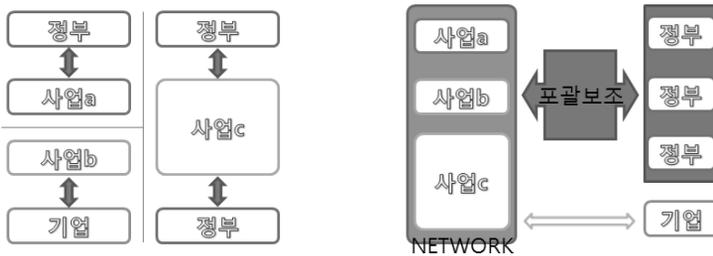
속적인 발전을 유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단순히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마을만들기의 목적이 아니며, 물리적 시설유지에는 지속적인 관리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지역이 가진 자연적, 문화적 자원을 특화 발전시키고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템을 꾸준히 발굴하여 지속가능성을 갖추어야 한다. 특성화 마을을 선도할 수 있는 특화아이템을 기반으로 지역의 초기 성장동력을 찾고, 지속적이고 참신한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여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 남해 가천다랭이마을, 성미산마을만들기). 지역주민의 사업발굴이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정부의 정책개발과 예산지원도 소프트웨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지역이 발굴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평가, 관리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녹색마을만들기에서는 저탄소 마을환경 조성과 녹색생활 실천이 중요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정책 및 기술은 지구적 환경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패러다임으로 작용할 것이다. 녹색성장시대에는 저탄소 녹색생활의 실천이 가장 손쉽고도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그린타운 조성시 녹색생활에 대한 주민인식을 개선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성공적인 녹색마을만들기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의 네트워크

(Networking)과 체계화가 필요하다. 마을만들기에는 많은 아이템의 사업이 가능하다. 기존의 마을만들기 사례들이 나열식으로 개별사업들이 추진되었다면, 녹색마을만들기에서는 여러 유관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엮어나가는 네트워킹 작업이 필요하다. 서울 성미산마을만들기<sup>7)</sup> 사례와 같이 지역에 뿌리를 둔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이 관계된 사업들을 네트워킹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향후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과 같이 개별사업을 패키지화하고 포괄보조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위 사업의 도입초기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혼란이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정책적 대세이다.

<그림 2> 사업의 네트워킹과 체계화



다섯째, 녹색마을만들기에서는 대안적 교육과 적극적인 노인돌봄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미산(공동육아, 성미산마을학교), 변산공동체, 산청갈전마을(민들레학교), 산청안솔기마을(간디학교) 등 성공적인 마을만들기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대안교육과 공동육아이다. 대규모 공교육과 개인육아에만 의존하는 국내 여건에서 도심과 떨어

7) 2007년 국토부 살고싶은마을만들기 사업을 준비하면서 마을만들기를 위한 네트워킹과 지원사업,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단체로 ‘사람과 마을’을 만들었으며, 2007년 12월 법인화되었다.

진 곳에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최근 산촌 유학, 마을학교 등 대안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 우리의 환경을 감안할 때, 노인에 대한 케어와 어린이 육아·교육이 기존의 개인적인 부담에서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 Abstract

The Ways of Maeul-mandeulgi(Making Village)  
in the era of Green Growth

Cho Young-Tae·Choi Sang-Hee·Km Ryoon-Hee·Km Sung-Je

The country's urban policy has been changing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paradigm of green growth. This research attempts to present the ways of developing green towns through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case analysis to explore the ways of making green villages of the green growth age. First, I considered the flow of 'Maeulmandeulgi' (making villages) and Japan's 'Matzizukuri' to define the concept of green town keeping pace with green growth which is the flow of policies at home and abroad. In the case analysis,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parameters (plan factors), aiming value, characteristics of business regions, correlations between the final beneficiary class and the promoting system in the 27 cases that could give implications. Through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the case analysis, the keywords for success such as residents' participation, community life, village leader, specialization plan, alternative education and care, culture and art, social enterprises, and network could be deriv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he green town development strategies of ① the expansion of residents' recognition and value sharing ② the specialization of the regions and maintenance of continuity ③forming the low carbon village environment and practice of green life, ④ the networking and systematization of business ⑤ the vitalization of alternativ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common care (senior citizens and infant care) can be presented.

Keywords: Green-growth, Green-town, Making village, Community, Sustainable

## 참고문헌

- 경기도. 2010. 『주민이 참여하는 경기뉴타운 시민대학 학습교재』.
- 구동희. 2004. 「도시문화전략으로서 장소 마케팅과 삶의 질」. 《지리학연구》, 제38권 3호.
- 국토해양부. 2009. 「2010년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시행 기준」.
- \_\_\_\_\_. 2009.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살고싶은 도시정책의 발전방안 연구」.
- 김진범 외. 2008.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마을계획 제도 도입 방안」. 국토연구원.
- 김현호. 2003. 「장소관측적 지역발전을 위한 장소자산형성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제36권.
- 마상열. 2009. 「경남 인구감소도시의 관리방안 연구」. 경남발전연구원.
- 변창흠. 2005. 「참여정부 개발사업 추진정책의 성격과 과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균형발전정책 2년간 평가와 대안』. 한국공간환경학회·한국지역사회학회 춘계 공동심포지엄 자료집.
- 양용동. 2006. 「주민참여형 도시 가꾸기로 경쟁력 키우는 일본(상)」. 평택시민신문.
- 오민근. 2003. 「마을만들기와 마찌즈쿠리, 그리고 지역활성화」. 문화도시문화복지.
- 조영태·최상희·김륜희. 2010. 「녹색성장시대의 그린타운 도입방안 연구」. 한국토지주택공사.
- 행정자치부. 2006.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모델 유형화 및 공모방안 수립연구」.

논문접수일: 2010. 9. 7

논문수정일: 2010. 10. 1

게재확정일: 2010. 10. 8